

전북, 동계체전 사전경기 빙상 종목서 첫 금메달

정유나, 스피드스케이팅 여고부 3000m·1500m서 1위... 대회 2관왕 차지
사전경기로 펼쳐진 바이애슬론 일반부서도 은 3·동 1개 등 총 4개 메달 수확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이 빙상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따냈다.

7일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강원과 경기 등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동계체전 사전 경기로 열린 빙상(스피드)에서 2관왕이 탄생했다.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여고부 경기에 출전한 정유나(전주제일고)는 30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관왕을 달성했다.

정유나는 매스타트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며 총 3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같은 종목 여자 일반부 경기에 나선 황현선(전북도청)도 매스타트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전경기로 펼쳐진 바이애슬론(일반부)에서도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전북 선수단에게 선물했다. /뉴시스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치러진 빙상 스피드스케이팅 여고부 경기에서 2관왕을 차지한 정유나.

익산시청 펜싱부, 전국대회 '승전보'

남·녀종목별 오픈대회서
금 1개 포함 총 3개 메달 획득

익산시청 펜싱부가 전국 선수권 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펜싱 명가 익산의 위상을 떨쳤다

7일 시에 따르면 시 소속 펜싱 선수들은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2023 전국 남·녀 종목별 오픈펜싱 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개를 포함,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정상에 오른 남자 에페 단체팀은 4강에서 해남군청을 45대28로 격파하고 결승에 올랐으며, 결승에서는 석정도 시개발을 만나 35대 34로 승리하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남자 에페 개인전에 출전한 권영준 선수가 결승에 올랐으나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사브르 단체팀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순근 익산시청 펜싱감독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훈련에 매진한 선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앞으로 열릴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현을 익산시장은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꾸준히 우리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K리그1 전북현대, 응원가 공모
6월 23일까지... 창작곡이어야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가 팬 참여로 응원가를 만든다.

전북 구단은 7일 오는 6월23일까지 4개월 동안 팬들이 참여해 만드는 전북 현대 응원가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 현대를 사랑하는 모든 팬이 참여할 수 있고, 순수 창작곡이어야 한다

최우수작에는 상금 600만원, 우수작 2곡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수상자에게는 시축과 하프타임 공연 기회도 제공한다.

선정된 곡은 전북 공식 응원가로 지정해 홈 경기와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활용된다.

구단은 "팬과 함께 전주성(홍구장 애칭)의 역사를 만들고 물들이고 싶다. 이번 응원가 공모전을 시작으로 팬과 함께하는 다양한 마케팅을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운영기관 선정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주관
전북대, 호남권서 '유일'
3년동안 총 30억원 지원
창업 거점 명성 공고해져



전북대학교는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스포츠산업 및 재창업지원사업' 중 예비·초기창업지원 부문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사진은 전북대학교 전경.

전북대학교는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스포츠산업 및 재창업지원사업' 중 예비·초기창업지원 부문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스타트업 육성과 아이템 발굴, 창업 성과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북대는 향후 3년간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지역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평균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전북도와 전북대의 스포츠 산업 대응자금을 통해 맞춤

형 창업 교육과 기업 성장을 위한 보육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2015년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된 이후 8년 연속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선정되며, 창업 거점으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권대규 창업지원단장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보유의 기

술 연계를 통한 특화된 융복합 스포츠, 농생명 바이오 기반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 분야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예비 및 초기 창업 분야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연금 수령 후 러 귀화” 사실아냐... 전액 기부”

'빅토르 안' 안현수, 올림픽 메달 연금 일시불 수령 논란에 해명

러시아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 안(38·한국명 안현수)이 최근 성남시청 빙상팀 코치직 지원 당시 논란이 된 올림픽 메달 연금 일시불 수령에 대해 해명했다.

빅토르 안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두가 힘든 시기에 최근 시끄러운 이슈로 이름이 오르

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공명해주시는 부분들을 답변드리지 못한 이유는 채용 과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자칫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발표가 난 후 말씀을 드리려 참뭉탈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30년간 오롯이 운동만 하며 살아왔고 성격상 제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려운 일"이라며 "그 결과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마치 사실처럼 비쳤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에 관해 그 과정을 한 치의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빅토르 안은 2011년 러시아 귀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2011년 6월 러시아로 출국했고 러시아빙상연맹 회장님과 향후 훈련



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러시아 소속 러시아·호주 인

타티야나 보루를 리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중 국적이 가

능한 줄 알고 알아본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그 선수처럼 특별 시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고인 끝에 결국 귀화 결정을 한 것"이라며 "수령한 일시금은 돌려드리

는 게 맞다고 판단해 심장 수술이 필요한 아이와 재활 및 치료가 필요한 후배 선수에게 전액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데 8월에 러시아발 기사로 귀화 절차가 알려지면서 한국에선 연금을 7월에 먼저 수령하고 8월에 귀화

를 결정한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 귀

화가 알려진 것은 8월이지만 7월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빙상지도자연맹은 빅토르 안이 성남시청 코치직에 지원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빅토르 안은 한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했을 당시 매국 논란이 일자 이중국적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귀화 직전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간 사실이 추후 드러났다"며 "이중 국적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 간 뒤 몰랐던 척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침묵하던 빅토르 안이 성남시청 코치직 채용이 종료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빅토르 안이 코치직 최종 후보에 들지 못하자 성남시청 소속 선수인 최민정 등은 투명하게 코치를 선발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청은 코치 자리에 아무도 채용하지 않았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 지키세요.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